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 근절과 청정화 유지



**박 봉 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산업동물바이러스학

### 1. 질병의 근절- 축산관련종사자의 합의로 이룩되어야

양축을 하면서 주기적인 소독이나 방역활동은 축주의 의무이 나, 함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우리 축산을 신명나게 하며, 안정되게 하고 위생수준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도 구축하면서 질병도 예방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의 발생을 계기로 강제적으로 소독설비 설치, 소독실시,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보관을 양축농가와 도축업 영업자, 가축집합시설 영업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농장 출입시, 도축장 출입시 반드시 세차·소독 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축이동 증명서의 소지를 권장하고 있으며, 농장주와 도축장에서는 소독 사실을 꼭 확인하게 함으로써 가축질병의 방역을 위한 자기소독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가축이동 증명제의 실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진보된 방법으로 방역이나 위생에서 역추적(traceability) 기능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질병의 근절에 활용하고 있다.

### 2. 유입의 방지 및 처리대책- 국가의 몫

질병의 박멸은 국가마다 각기 고유한 방법으로 나라의 실정에 맞게 펴고 있으며,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또한 국가적으로 축산의 경제적 위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공·항만에

서의 검역절차는 우리나라처럼 국제화를 명분으로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호주는 농·축산물의 자국보호책의 일환으로 공·항만 검역에 매우 치중하는 일면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세관 검사대에 대한 검역검사대의 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면에서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은 호주 시드니공항에 비하여 1/10에 지나지 않으며, 그 기능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문제발생시 일반적으로 초기 방역조치 미숙, 폐사축 처리, 감염축 유통 등 확산차단 조치 미흡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축가의 의식교육, 매몰장소 확보, 소각 및 랜더링 시설 등 질병발생시 살처분 시설,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문제 해소책, 살처분 보상과 재입식 지원 등 양축농가 지원책,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기능적 조직구성, 생산자의 공동의식 거양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사전 조정이 일반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이다. 또한 돼지콜레라, 구제역 박멸정책을 통하여 여전히 살처분 정책의 유지에는 예방접종으로 갈 것인지, 두 가지를

병행할 것인지도 발생 때마다 유동적인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산 조사료 수입에 대한 방역기구의 강화 및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확대 방안, 발생시 상황별 소비·유통을 포함한 국가방체계획 등 포괄적인 구조 개혁이 숙제로 남아 있다.

우리는 2001년 12월 이후

논란일 것이다. 철원과 강화의 경우에 분리된 바이러스는 2형으로 기존에 분리되던 3형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전자형으로 해외유입 가능성을 높게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관계없이 문제처리를 말씀하게 하는 준비와 돼지콜레라 발생에서 감염의 근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의 발생을 계기로 강제적으로 소독설비 설치, 소독실시,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보관을 양축농가와 도축업 영업자, 가축집합시설 영업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농장 출입시, 도축장 출입시 반드시 세차·소독 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축이동 증명서의 소지를 권장하고 있으며, 농장주와 도축장에서는 소독 사실을 꼭 확인하게 함으로써 가축질병의 방역을 위한 자기소독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살처분을 통한 박멸 정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 중단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경산모돈과 40일령 이전의 자돈에 있어서 모돈으로부터의 이행항체가 면역의 전부이다. 우리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의 결정을 내린 후 돼지콜레라의 발생에서 근절의 최대의 걸림돌은 검출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원을 철저히 파헤치는 역학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조기신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양축가 및 수의사의 몫

최근 3년간 돼지콜레라는 1998년에 6건 895두, 1999년에는 5건 1,683두였으며, 1999년 8월 경기지역 발생을 마지막으로 발생과 관련한 어떤 보

고나 소문도 없다가 2002년 12월 13일 현재 철원과 강화의 11건 발생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야외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멧돼지 뿐만 아니라 의심돈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축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독철저, 차단방역, 떨어돼지 도입 금지, 조기신고 등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0년과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 돼지콜레라의 유입원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는 대부분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가 최근에도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잠재력을 늘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교역이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시대에 한 국가의 축산이 사료공급의 기반, 주변국의 가축질병 발생환경과 질병발생 정보교환의 상호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의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의 발생에서는 뚜렷한 임상증상이 없어 수의사 조차도 의심축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웠었다. 구제역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양축가로서는 자가치료를 시도하다가 나중에 수의사에 의해 의심축으로 발견되어 신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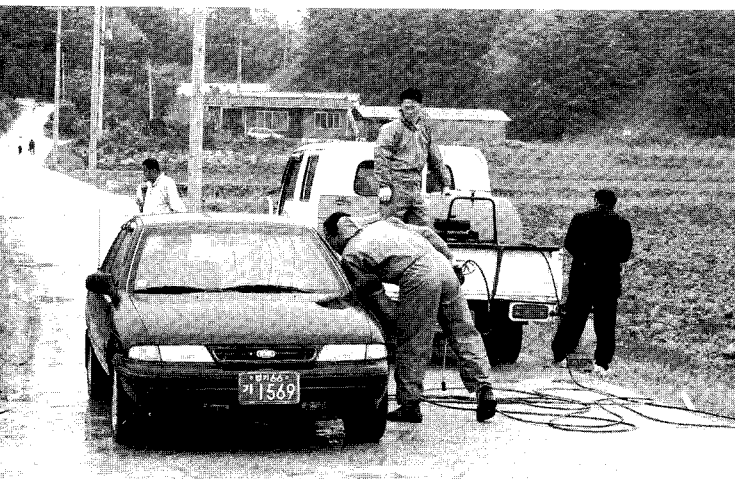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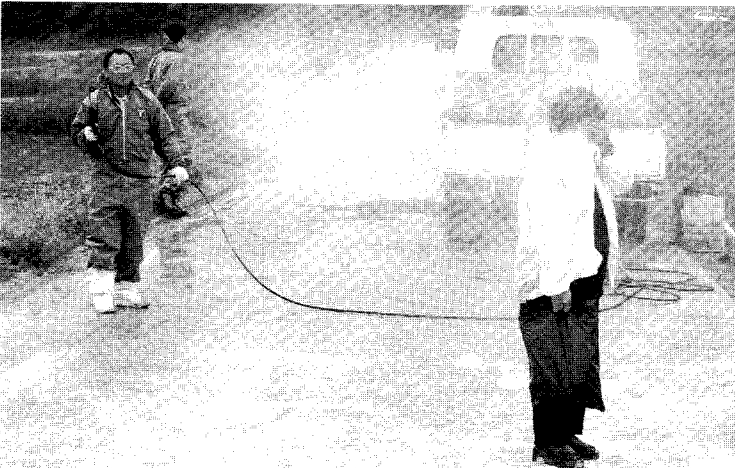
#### 4. 청정화의 유지- 양축가의 몫

돼지콜레라, 구제역의 박멸은 이제 대부분 축주의 신고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이번의 구제역 발생에서도 색출 경위를 보면 축주의 신고, 주변의 임상수의사가 이를 확인 해주었다. 이럴 때 축주나 임상수의사는 조기신고는 물론 환축을 검사한데 따른 돼지콜레라,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매체로서 활동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확인검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소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일단 두 질병으로 의심될 경우 가축의 이동을 자제하고 판매 등 정상적인 동물의 이동 조차도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발생초기 국가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과 일정기간 동안 바이러스 감염축이 이동하고 시장경매 등 동물의 움직임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그것은 늘

있는 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임상증상인 경우 선입관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동물의 입식은 전문축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방역위생을 위해서라도 구매나 입식을 금지하고, 격리사육 등 차단방역에 필요한 조치는 늘 지켜져야 할 것이다. 두 질병의 임상증상과 경제적 중요성은 그 동안의 홍보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심이 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각 시·도 시험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와 함께 자기소독 등 동물의 이동판매를 자제하고 확진 및 조치를 기다려 주기 바란다.

#### 5. 미래지향적 발전계획 수립- 리더그룹의 몫

2000년 3월 20일경 우리나라의 양돈은 그동안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안정한 축산의 틀을 준비해 오던 과정에서 이 모든 노력을 한꺼번에 뒤엎는 구제역의 발생에 직면하였었다. 그러나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우리 축산의 리더그룹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어쩌면 축산



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순간 (실제로는 연속적 의미를 지녔다)의 아픔은 있었지만 행복한 분들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사회나 경제발전이 얼마나 크게 동요하는 지를 충분히 경험했다.

어떻든 4개월의 짧은 기간에 구제역 발생에서 160여 농가의 16만여두의 가축을 살처분한 것으로 발생을 마무리하고, 11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재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돼지콜레라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13,000여두의 살처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돼지콜레라 박멸정책이 순조로이 그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양돈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우리 양돈업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하고 있다.

과다 생산과 수출중단, 계절적 소비감소, 경기침체 등의 악재가 겹쳐 여러 가지로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모든 것이 리더그룹의 의지에 힘입어 새로운 기지개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양돈**